

큰빛은혜교회 가정에배지

2026. 1. 21.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세상 흔들리고”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양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절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2절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코러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2절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마가복음 2장 5절

5.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인공지능이 일상이 되고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데이터로 예측되고 숫자로 증명되는 세상이지만, 역설적으로 현대인들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빈곤합니다.

왜일까요? '확실한 것'은 많아졌지만, 정작 '믿을 수 있는 것'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하고, 관계는 파편화되었습니다. 이 불확실한 파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를 고정시킬 유일한 닻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 믿음이 넘쳐나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환경 너머의 '하나님의 사이즈'를 보는 믿음

사람은 사물이나 환경을 대할 때 만지는 것보다, 또는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볼 때 더 빠른 정보를 얻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을 때 더 큰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도단 성을 포위합니다. 사환 게하시는 적군의 말과 병거를 보고 두려워 떨어졌지만, 엘리샤는 태연했습니다. 엘리샤가 기도하여 사환의 눈을 열어주자, 그제야 게하시는 적군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 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2026년을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문제, 자녀의 미래라는 '아람 군대'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람 군대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내 눈앞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내 시선이 문제에 머물면 '절망'하지만, 하나님께 머물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보는 믿음'이 넘쳐나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안락함을 깨트리는 행하는 믿음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작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도전하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은 누가 봐도 거창하고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하고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본문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베드로가 밤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를 오라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베드로는 배 안에서 믿음을 분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거친 파도가 치는 배 밖으로 실제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걷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배 안(안전지대)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2026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많을 것입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 시작해야 할 사역, 끊어야 할 습관, 그리고 도전해야 할 일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저 없이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기적은 '생각'할 때가 아니라 '움직일' 때 일어납니다.

셋째, 남을 위한 중보의 믿음

어릴 적 어머니께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교회에 가면 성도들이 자신이 매일 앉으시던 자리에서 기도하시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 새벽에 찬 공기를 맞으며 어두운 성전에 조용히 들어가 기도하던 어른들의 그 모습이 '교회'였습니다. 그분들이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던 모습이 참 많이 그립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한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 네 친구가 그를 침상째 메고 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갈 수 없자 그들은 남의 집 지붕을 뜯어 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를 고치셨다고 기록합니다.

인공지능과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 하는 중보의 믿음'입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안 돼”라고 정죄하기보다, 그 사람의 영혼을 메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중보자가 되십시오.

때로는 누군가의 지붕을 대신 뚫어 주는 그 간절한 중보의 믿음이 2026년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나 남 다 같 이

1. 요즘 내 삶에서 '아람 군대'처럼 크게 보이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더 크시다는 것을 믿기 위해 내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고백, 기도는 무엇인가?
2. 내 주변에 지금 누군가의 믿음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중보의 행동 한 가지는 무엇인가?

중 보 기 도 베이 지역과 미국을 위해 다 같 이

1. 미국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진리를 선포하도록
2. 이민자들과 소외된 이웃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3. 미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4. 베이 지역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5. 베이 지역을 붙잡고 있는 물질만능주의, 동성애가 떠나가도록

마무리 기도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문제만 보지 않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닌 순종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누군가를 품고 중보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